

일본·대만 '자유여행' 활짝...무안국제공항 '날아오른다'

12월부터 항공권 전석 직접 발권...개항 17년만에 최초 방학시즌 맞물려 20-30대·가족단위 이용객 증가 주목 노선 다변화·정기선 확대 등 공항 활성화 마중물 기대

12월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오사카와 대만 타이베이 등 3개 도시를 오가는 항공권 전석이 직접 발권 형태로 판매된다. 그동안 무안공항 국제선의 경우 여행사 패키지 상품에 국한돼 있었지만 개항 17년 만에 100% 자유여행 길이 열렸다.

특히 겨울방학 시즌과 맞물려 20-30대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이 선호하는 일본·대만행 항공권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이용객 수요 증가에 따른 무안공항 활성화의 단초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2월2일부터 내년 3월20일까지 무안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도쿄, 대만 타이베이 등 3개 도시를 오가는 항공권이 매일 운항한다.

무안공항에서 국제선 정기편이 매일 운항하는 것은 2007년 개항 이후 17년만에 처음이다.

무엇보다 3개 노선 모두 항공권 판매본 전체를 검색 포털, 항공사 사이트 등

을 통해 이용객이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00% 직접 구매 역시 무안공항 개항 이후 최하다.

그동안 무안공항에 취항한 항공사들은 면세점 등 인프라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손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 매출 확보가 가능한 '하드블록' 형태로 좌석 전체를 판매해왔다.

'하드블록'은 여행사가 패키지 상품 구성을 위해 미리 사둔 항공권을 의미한다. 항공권 판매 권한이 여행사에 있다 보니 항공권 개별 구매가 원천 차단됐다. 이 때문에 여행객이 입·출국 날짜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자유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전남도는 이용객 불편 해소와 정기노선 유지를 위해 무안공항 개항 이후 지급해온 항공사 재정손실금을 올해부터 신규·복항·증편 정기 국제선에 대한 운항장려금으로 개선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제주항공·진에어의 정기노선 취항 업무협약 때 일



사랑의 연탄 배달 임동(左)이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광주시교육청 봉사동호와 서구자원봉사센터 회원, 학생들이 서구 유덕동의 한 주택가에서 따뜻한 겨울 준비를 돕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세대에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정 좌석을 직접 발권 형태로 판매하도록 구두 상 협의했다. 이어 지난 7월 무안군·한국항공공사·라오항공과 국제 장려금 지원 조건으로 편당 공급 좌석 수의 최소 20% 이상을 직접 발권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전국적으로도 항공사와의 노선 협약에 직접 발권 조항을 명시한 것은 전남도가 최하다.

전남도는 라오항공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운항장려금 지급 조건에 공급 좌석 수 20% 이상 직접 발권 조항을 규정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항공권 직접 발권을 통해 자유여행 수요 증폭은 물론, 수익성 증가로 인한 정기선 확대 등 무안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광민 전남도 도로정책과장은 "이용객 효용이 높을 경우 앞으로 직접 발권 좌석 비중을 확대하고 항공사에는 비정기선을 정기선으로 전환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무안공항에서는 제주항공의 나가사키·타이베이·방콕·코타키나발루 노선, 라오항공의 비엔티안·우양프라방 노선, 룽에어의 항저우 노선 등 7개 노선이 전체 항공권 20% 정도를 직접 발권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무안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은 32만3천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2천456명보다 87.5% 늘었다. 전국 8개 국제공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양시원 기자

광주 상·하수도 요금 4년간 총 36% 인상

적자 누적 매년 9%씩 ↑...가정용은 '단일요금제'로 전환

광주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오는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월평균 상수도 800원·하수도 500원) 인상하고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Today
시·도 행정사무감사 '파행도 파행' 3연
챔피언스필드 관중석 전면교체 5연
광주, 내년에도 K리그1에서 뛰다 16연

이는 지난 8월20일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누적 적자 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 이후 7년간 동결돼 생산 원가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하수도 요금은 처리 비용의 65% 수준으로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인상된 요금을 재원으로 2025년 안정적 인·수돗물 공급을 위해 167억원을 투입,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진행하고 130억원을 들여배수지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t)을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은 월평균 800원, 하수도 요금은 월평균 500원 추가 부담할 전망이다.

또한 가정용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적용했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 체계로 전환한다. 가정용의 경우 1단계(1-20㎥) 사용량이 전체의 98%를 차지해 누진제의 실효성이 낮고 다인 가구(다자녀 가구 등)가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요금 체계로 전환한다. /박성기 기자

본보 '2024 지역신문 컨퍼런스' 동상

안재영 기자 '고립무원 무적자' 탐사·기획 보도

신분이 없어 국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무적자(無籍者)'를 집중 취재한 광주매일신문의 탐사·기획 보도 '고립무원 무적자'가 '2024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2024 지역신문 컨퍼런스'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최·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지난 8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다.

'지역신문법 20년, 지역신문의 미래를 그리다'란 주제로 열린 올해 컨퍼런스에는 전국의 지역신문이 참여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8개 일간지와 8개 주간지 등 총 16개 지역신문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광주매일신문 안재영 기자(사진 오른쪽)는 '지역신문과 솔루션 저널리즘' 분야에서 '있지만 없는, 고립무원 무적자'를 주



제로 발표했다.

안 기자는 법에 의해 처벌받지만 신분이 없어 보호받지 못하는 무적자의 현실을 취재하고 구제 방안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렸다.

또 분명히 존재할 또 다른 무적자를 구제하기 위해선 전국의 언론과 기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후속 보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낸 안 기자는 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주성학 기자

제5회 광주매일신문

광주·전남

관광대상 공모

광주매일신문과 한국관광연구회는 '제5회 광주·전남 관광대상'을 공모합니다. 광주·전남 관광대상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 현장에서 발로 뛰는 활동가 등을 발굴하고 지속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관광대상 시상은 종합대상, 축제, 콘텐츠·MICE, 여행업, 숙박업, 특별 부문 등으로 세분화해 표창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축제 등 관광산업 발전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고 있는 지자체 및 기관, 전문가, 기업, 관련분야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주최 | 광주매일신문 · (사)한국관광연구학회

주관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

광주 전남 관광대상 공모부문 및 시상

▶ 종합대상 부문	▶ 콘텐츠 MICE 부문	▶ 숙박업 부문
▶ 축제 부문	▶ 여행업 부문	▶ 특별 부문

접수자격 자치단체, 기관, 기업체, 단체, 협회 등

접수방법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dkyo@kakao.com
* 신청서는 화면 상단 관련 파일 다운로드 클릭

접수마감 2024년 11월 15일(금) 도착 분 마감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